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금년중 동남권 수출을 둘러싼 여건은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국, 중국, 유로, 아세안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가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교역은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중동지역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선진국 소비수요 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글로벌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동남권 수출은 1,300억 달러대를 회복하며 전년대비 6.7% 증가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이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산업 및 기계산업도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업의 경우 감소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 및 동남권 수출 감소

2019년 국내 수출 실적은 5,423억 달러(전년대비 -10.3%)에 그치며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동남권의 경우 전국보다 감소폭은 크지 않으나 마이너스 성장(-1.6%)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이 전년대비 11.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13.9%), 합성수지(-9.4%) 등이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3.3%)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 파업의 영향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33.3% 줄어든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다음으로 경남(-2.2%)은 섬유화학기계 호조에 힘입어 2018년 대비 감소폭은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 부진하면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울산(-0.9%)의 경우 석유제품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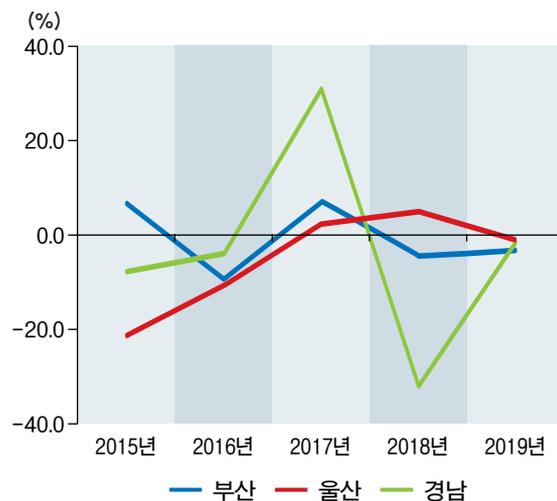
전국 및 동남권 수출 동향

(억달러, %)

구분	전국		동남권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2015년	5,268	(-8.0)	1,355	(-14.3)
2016년	4,954	(-6.0)	1,246	(-8.0)
2017년	5,737	(15.8)	1,412	(13.3)
2018년	6,049	(5.4)	1,248	(-11.7)
2019년	5,423	(-10.3)	1,228	(-1.6)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 수출 증가율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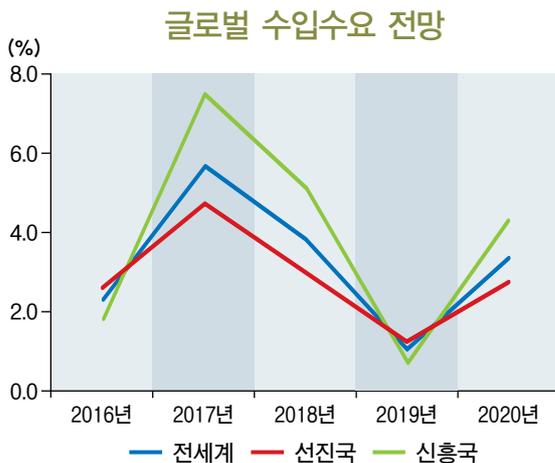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① 글로벌 수입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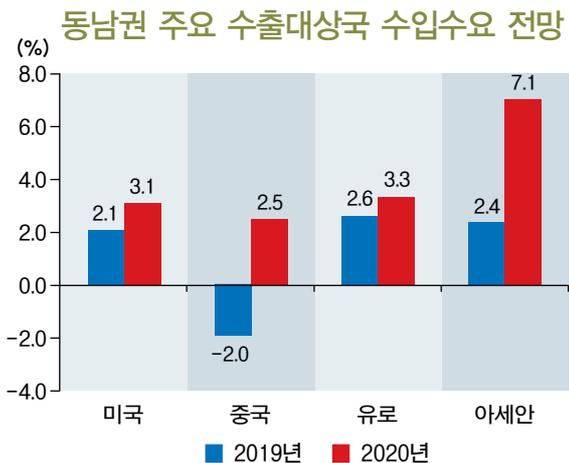
금년중 글로벌 수입수요 확대는 동남권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MF는 전세계 수입수요 증가율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3.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기간 선진국(1.2% → 2.7%)에 비해 신흥국(0.7% → 4.3%)이 높은 신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남권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도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수출대상국 미국은 지난해 2.1% 증가에 그쳤으나 금년중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3.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위 수출대상국 중국도 지난해 감소(-2.0%)했으나 금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등에 힘입어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유로와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 유로의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2.6%에서 금년에는 3.3%로 상승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지난해 수준(2.4%)을 크게 상회하는 7.1%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IMF



주 : 1) 전년대비 증가율
2)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개국 기준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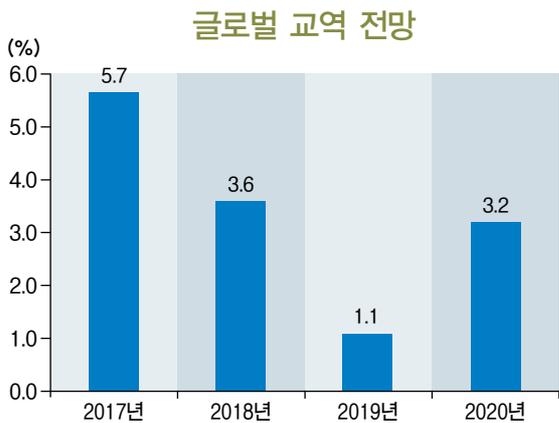
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 부진에 따른 중국 수입수요 감소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

② 교역 불확실성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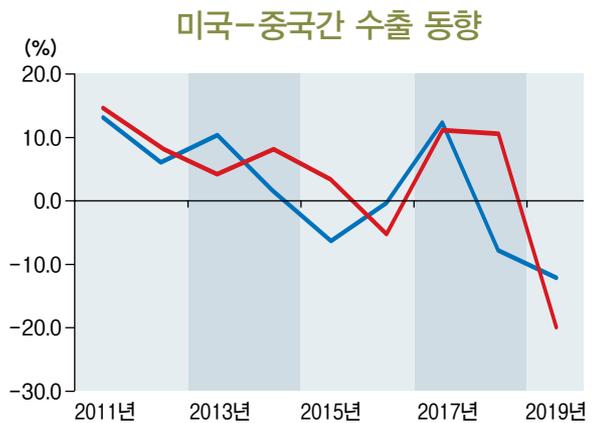
지난해 글로벌 교역 증가세는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불안요인이 산재하면서 1.1%까지 낮아졌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대중수출은 -12.1%, 중국의 대미수출은 -20.1%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년에는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3.2%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고 추가 합의 과정을 밟아나갈 예정이라는 것이 글로벌 교역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노딜 브렉시트 이슈도 영국이 예정된 절차에 따라 EU를 탈퇴하면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²⁾

금년초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던 중동지역 리스크도 완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동남권의 경우 전체 원유수입액 155억 달러중 146억 달러(94.0%)를 중동³⁾에서 수입하고 있다. 향후 중동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경우 원유수급 차질로 정유·화학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운송비 등 원가부담 상승으로 지역 제조업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올 연말까지로 정해진 준비기간 연장 관련 갈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3) 중동 8개국(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기준

[참고] 동남권과 중동 주요국간 교역 현황 (2019년 기준)

교역규모

- 대중동 수출액은 42억 8천만달러, 전체 수출 대비 3.5% 비중
- 대중동 수입액은 173억 2천만달러, 전체 수입 대비 25.5% 비중

(백만달러)

구분	수출				수입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UAE	1,400	187	780	433	829	35	763	31
사우디	1,329	119	814	396	13,552	6	13,530	16
이라크	750	129	307	314	683	0	681	2
쿠웨이트	283	35	206	42	382	0	381	1
오만	260	41	97	122	629	2	22	605
카타르	113	18	47	48	1,231	10	44	1,177
바레인	110	14	72	24	9	3	2	4
이란	37	13	2	22	2	2	0	0
소계	4,282	556	2,325	1,401	17,317	58	15,423	1,836

교역품목

- 수출품목 1위는 자동차(12억달러), 2위 자동차부품(4억달러), 3위 선박(2억달러)
- 수입품목 1위는 원유(146억달러), 2위 천연가스(18억달러), 3위 석유제품(5억달러)

(백만달러)

구분	수출				수입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UAE	자동차부품 (335)	선박 (41)	자동차부품 (324)	고무제품 (89)	원유 (702)	동광 (9)	원유 (702)	알루미늄 (18)
사우디	자동차 (717)	무기류 (36)	자동차 (642)	자동차 (74)	원유 (12,799)	합성수지 (4)	원유 (12,799)	알루미늄 (11)
이라크	자동차 (290)	원동기 (38)	자동차 (290)	항공기 (246)	원유 (681)	무기류 (0)	원유 (681)	기타기계류 (1)
오만	합성원료 (52)	무기류 (22)	합성원료 (52)	공기조절기 (19)	천연가스 (594)	어류 (2)	기타화학품 (13)	천연가스 (594)
쿠웨이트	선박 (142)	기계요소 (9)	선박 (142)	공기조절기 (12)	원유 (370)	기타기계류 (0)	원유 (370)	알루미늄 (1)
카타르	자동차 (16)	원동기 (9)	자동차 (15)	전력용기기 (12)	천연가스 (1,159)	석유제품 (7)	원유 (40)	천연가스 (1,159)
바레인	전력용기기 (30)	주단조품 (6)	전력용기기 (24)	전력용기기 (6)	알루미늄 (2)	갑각류 (2)	기타화학품 (1)	알루미늄 (2)
이란	공기조절기 (9)	의료용기기 (4)	합성고무 (1)	공기조절기 (9)	동제품 (1)	동제품 (1)	건설기계 (0)	산식물 (0)

주 : 1) MTI 3단위 기준 2) ()내는 수출 및 수입금액이며 0은 백만달러 이하 금액을 의미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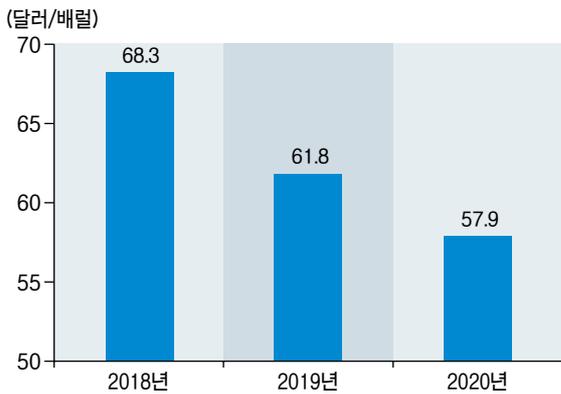
③ 국제유가 약세

금년중 국제유가는 약세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원유수요는 10,228만 b/d로 지난해(10,214만 b/d)와 비슷한 수준이겠으나 비OPEC국 중심의 공급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IA(미국에너지청)는 미국을 중심으로 비OPEC국가의 원유 공급량이 전년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 약세는 선진국 등 석유수입국 소비여력 개선 등의 효과로 동남권 수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유가약세에 따른 생산단가 하락은 중장기적으로는 수출물량 확대와 수출금액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력업종별 영향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연료비 부담 감소 등에 따른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석유화학산업은 납사가격 하락으로 원가부담은 줄겠지만 제품단가가 낮아지면서 금년중 수출액은 감소할 전망이다. 기계산업도 유가 약세에 따른 중동지역 해외 건설, 플랜트 등 발주 확대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선업의 경우는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선박인도가 활기를 띠겠지만 해양플랜트 수주 기대는 약화되는 등 상하방 압력을 모두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유가 전망



주 : WTI, Brent, Dubai 평균
자료 : IMF

원유 공급량 전망

구분	(단 b/d, %)		
	2019년	2020년	증감률
OPEC	3,523	3,435	-2.0
비OPEC	6,561	6,794	3.6
(미국)	(1,962)	(2,121)	(8.1)
전세계	10,083	10,229	1.4

자료 :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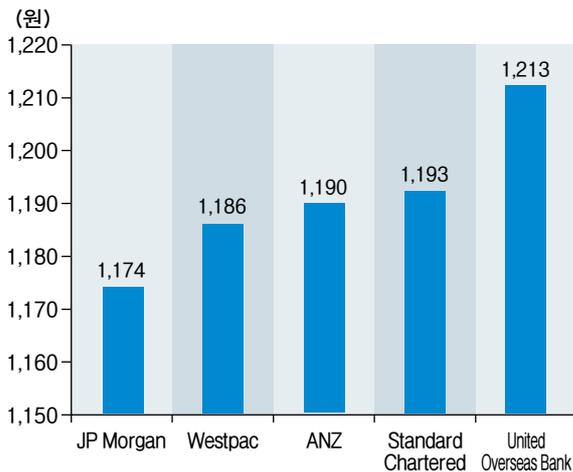
④ 환율 상승

금년중 미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해 보다 상승하면서 수출 확대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내 주요 전망기관은 2020년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1,168~1,169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JP Morgan, Standard Chartered 등 일부 글로벌 IB들은 원/달러 환율이 1,174원~1,213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리스크,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과 중국 위안화 약세 압력에 따른 달러 강세 등이 환율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국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환율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arclays, UBS, Citi, Goldman Sachs 등 주요 IB들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금년중 1회 단행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1.0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반등 전망, 한국 경상수지 흑자 등은 환율 상승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원/달러 환율 전망



주 : 2020년 연평균 환율 전망치
자료 : Bloomberg

국내 기준금리 전망

구분	시기	전망기관
1회 인하 (1.25% → 1.00%)	2020년 상반기	· Barclays · UBS · Citi
	2020년 하반기	· Goldman Sachs
동결 (1.25%)	-	· JP Morgan · HSBC

주 : 2019년 12월 전망
자료 : Bloomberg

⑤ 주력산업 글로벌 업황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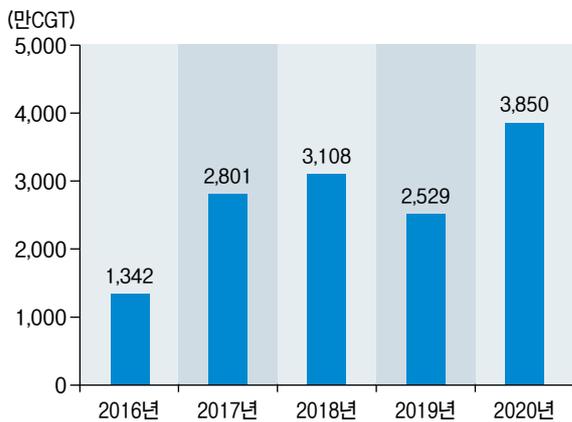
금년에는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업황이 개선되면서 동남권 수출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선업의 경우 글로벌 발주가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529만CGT) 보다 크게 늘어난 3,850만CG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 국내 수출도 높은 수주량을 기록했던 2018년의 수주물량이 약 2년간의 생산 공정을 거쳐 금년중 본격 인도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산업은 전세계 수요가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전망기관 LMC Automotive는 전세계 자동차 수요가 2018년 -0.7%, 2019년 -4.5%로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미, EU 시장 중심으로 SUV와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계산업은 유로지역 제조업 회복, 인도 등 신흥시장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인도 인프라 시장은 2020년 990억달러에서 2024년중 1,460억달러까지 연평균 10.4%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선박 발주량 전망



자료 : Clarkson

인도 인프라 시장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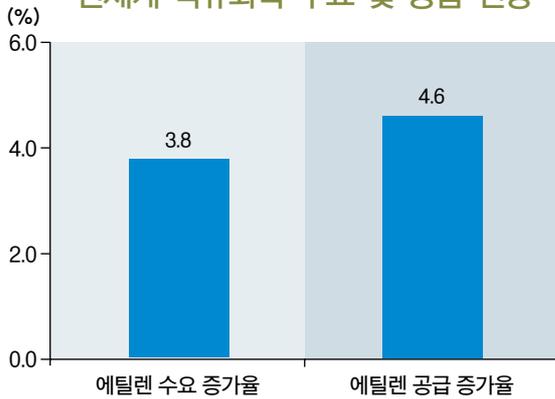


자료 : Kotra

한편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업 업황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수요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대규모 ECC 설비 가동 등으로 공급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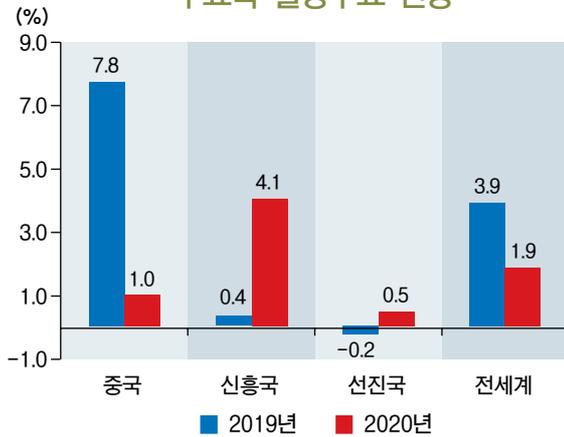
철강산업은 글로벌 철강 수출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수요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세계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 증가세가 지난해 7.8%에서 금년에는 1.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 석유화학 수요 및 공급 전망



주 : 2020년 증가율 전망치
자료 : 석유화학협회

주요국 철강수요 전망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World Steel

동남권 주력산업 글로벌 업황 전망

업종	전망	내용
조선	☀️	· 글로벌 발주 확대 등 업황 회복세 지속 · 2018년 국내 수주물량 본격 인도 기대
자동차	☀️	· 3년만에 글로벌 수요 플러스 전환 · 북미, EU 중심으로 SUV와 친환경차 수요 확대
기계	☀️	· 유로 제조업 개선, 신흥국 인프라투자 확대 · 인도는 2020~24년중 연평균 10.4% 투자 확대
석유화학	☁️	· 글로벌 수요 증가세 미약 · 대규모 설비가동으로 공급경쟁 심화
철강	☁️	· 글로벌 철강 수출규제 지속 · 중국 등 전세계 수요 증가세 둔화

4) 석유화학산업 규모는 통상 에틸렌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에틸렌이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 다양한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본이 되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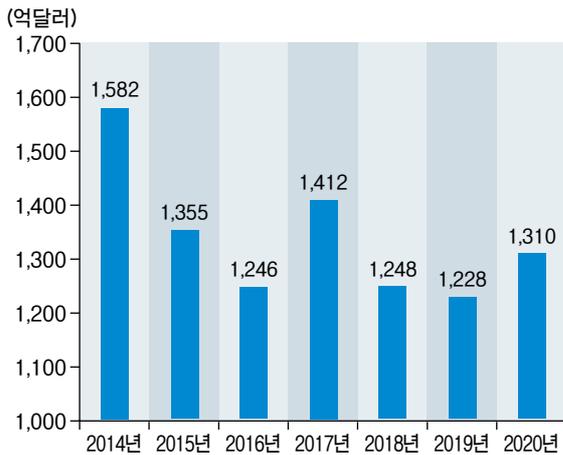
2020년 동남권 수출 1,300억 달러대 회복할 전망

금년중 국내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률 상승,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는 수출 증가율을 3%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⁵⁾.

동남권 수출도 글로벌 수입수요 확대, 교역 불확실성 완화, 국제유가 약세, 환율 상승, 지역 주력산업의 글로벌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동남권 수출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1,3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증가세를 상회할 전망이다⁶⁾.

업종별로는 조선업이 장기 부진⁷⁾에서 벗어나 23.5%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은 현대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6.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계산업도 신흥국 수출 중심으로 3.6%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석유화학산업(-3.0%)과 철강업(-0.5%)의 경우 감소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수출 전망



주 : 2020년은 BNK금융경영연구소 전망치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구분	(억달러, %)		
	2019년	2020년	증감률
자동차	273.1	286.7	6.2
조선	172.3	208.5	23.5
기계	166.1	171.0	3.6
석유화학	90.5	87.8	-3.0
철강	57.7	57.4	-0.5

주 : 2020년은 BNK금융경영연구소 전망치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금융경영연구소

5) 2020년 국내 수출 증가율은 산업연구원 2.5%, 기획재정부 3.0%, 한국무역협회 3.3%로 전망

6) BNK금융경영연구소의 2020년 동남권 수출 전망치는 산업연구원 전망과 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정

7) 동남권 조선업 수출 증가율은 2018년 전년대비 -53.7%, 2019년 -3.6%로 부진 지속

[참고문헌]

LMC Automotive, “2020 : An end to the global car market slump?”, 2019.11
 기획재정부, “2020년 경제전망”, 2019.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 : 인도 인프라시장, 개발 본격화”, 2019.12
 산업연구원, “2020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2019.1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년 조선업 수주, 2년 연속 세계1위”, 2020.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9.11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2019.12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2019.12
 국제통화기금, www.imf.org
 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세계철강협회, www.worldsteel.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	--------------------

펼쳐라 행복
펼쳐라 BNK

당신의 꿈을 더 높이
 당신의 희망을 더 멀리
 펼칠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이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드립니다

BNK 우산 DREAM 캠페인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BNK금융지주
 제2020-0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1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